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탄자니아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8년 9월 5일 | 선임조사역(G2) 오경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947천 km ² 	인구 51,046백만명 (2018기준)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566.64억 달러 	1인당GDP 1,110.05달러 	통화단위 Tanzania Shilling (TSh) 	환율(U\$기준) 2,270.90 

-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3배에 달하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모잠비크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대륙 본토인 탕가니카와 과거 오만의 지배로 이슬람 성격이 강한 잔지바르 섬(인구 약 1백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지바르는 별도의 자치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음.
- 130여 개의 다양한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종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종족간 또는 종교간 마찰이 적어 내란과 테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 풍부한 부존자원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며 전통적으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 현대화 정책이 추진 중임.
-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일원으로 관세 동맹, 공동시장 설립 등을 통해 역내 평화 및 지역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케냐와의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갈등이 드러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4. 30 수교 (북한과는 1965. 1. 4)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05), 문화협정('06),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05), 무상원조기본협정('14)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193,680	138,983	124,819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수 입	50,835	41,650	40,382	농림수산물, 귀금속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26건, 7,813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7.0	7.0	7.0	6.0	6.4
소비자물가상승률	6.1	5.6	5.2	5.3	4.8
재정수지/GDP	-3.0	-3.3	-2.2	-2.7	-4.4

자료: IMF, EIU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과 가계소비 증가로 6%대 성장 유지 전망

- 탄자니아는 원조자금을 활용한 도로·항만·전력 등 인프라 개선, 서비스 부문(GDP의 약 60% 점유)과 광업 부문의 성장 등에 힘입어 2011~16년 평균 6~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17년에는 광물법 개정으로 금을 비롯한 주요 광물의 비가공 수출(별도의 가공 없이 선별된 원광을 그대로 수출)이 제한을 받음에 따른 상품수출 감소, 민간 소비 및 투자의 확장 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 포인트 위축된 6.0%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탄자니아 정부는 2017년 3월 2일 광업 부문의 부가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탄자니아 국내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속광물(금, 은, 구리, 니켈 등)의 정광(mineral concentrates) 및 원광석(ore)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 2018년에는 천연가스 및 인프라 개발 확대, 기업환경의 점진적 개선에 따른 투자 활성화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은 6%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광물법 개정으로 인한 광물 수출 부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 탄자니아 최대의 금광회사인 Acacia Mining은 8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탄자니아 정부의 금 수출 제한으로 인해 2018년 상반기의 금 생산량이 25.8만 온스로 전년동기 대비 41%나 감소하였다고 공개하였음.
- IMF는 2018년 1월 탄자니아에 대한 Country Report¹⁾에서 동국의 경제성장률이 중기적으로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은행들의 부실여신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 증가(credit growth)가 부진한 수준에 그치는 등 경제활동 둔화의 신호가 일부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1) IMF Country Report No.18/11, United Republic of Tanzania - Staff Report (January 2018).

국내경제

열악한 세수 기반과 인프라 개발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기조 유지

- 탄자니아는 세수 기반이 열악하고 성장 및 빈곤감축 전략에 따른 인프라 확충과 빈곤 감소 프로그램 추진,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 투자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IMF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은 2002년 8%에서 2016년 12.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접국들인 케냐와 르완다(2016년 15%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탄자니아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해 2012년 면세대상 축소를 단행하였으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인프라 개발 확대의 지속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2018년에는 제조업 부문 기업들에 대한 면세 혜택 유지, 재정지출 총액의 30%에 육박하는 정부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 국영 광물기업의 2차 가공 프로젝트 추진, 각종 인프라 개발 투자 지속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대 중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우려됨.

식료품 가격 안정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 전망

- 2012년 식료품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16.0%에 달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후 국제유가 하락, 식료품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2014년 6.1%로 하락한 뒤 2015~17년 3년 연속 5%대로 하향 안정되었음.
- 2018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4%대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미 달러화 강세 지속에 따른 탄자니아 실링화 가치 변동성, 4월 중순 발생한 홍수(사망자 20명)의 피해가 농산물 작황에 미칠 영향 등의 변수가 상존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5,344	-4,120	-2,009	-1,530	-1,809
경상수지/GDP	-11.1	-9.0	-4.2	-3.0	-3.2
상 품 수 지	-5,724	-4,441	-2,766	-2,726	-3,001
상 품 수 출	5,194	5,402	5,697	4,621	4,702
상 품 수 입	10,918	9,843	8,464	7,347	7,703
외 환 보 유 액	4,181	3,934	4,245	5,082	4,848
총 외 채	13,731	15,505	16,475	19,244	21,311
총외채잔액/GDP	28.5	34.0	34.6	37.2	37.5
D.S.R.	3.5	7.7	9.7	11.0	12.9

자료: IMF, EIU

금 수출량 감소 및 가격 하락, 자본재·소비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주요 수출품인 금의 수출물량 감소 및 국제가격 하락,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및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재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발생이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음.
- 2018년에도 금의 수출물량 감소 및 국제가격 하락, 제조업 및 통신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 추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3.0%)대비 약간 상승한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뉴욕상품거래소(COMEX) 선물 기준 2007년 11월 14일 705.00달러까지 하락했던 온스(ounce)당 국제 금 가격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상승세를 타고²⁾ 2011년 9월 9일 1,899.00달러까지 고공행진을 지속한 이후 2012년 하반기에 하락세로 전환, 2018년 8월 16일 1,176.20달러까지 하락하였음.
- 금융위기 진정에 따라 2015년 12월 18일 1,050.80달러까지 하락한 국제 금 가격은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1월 25일 다시 1,362.4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해 재차 하락세로 접어들었음.

2) 금은 미 달러화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국제 금 가격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정비례하고 미 달러화 가치와 반비례함. 따라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제수요 급증을 초래하여 국제 금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음.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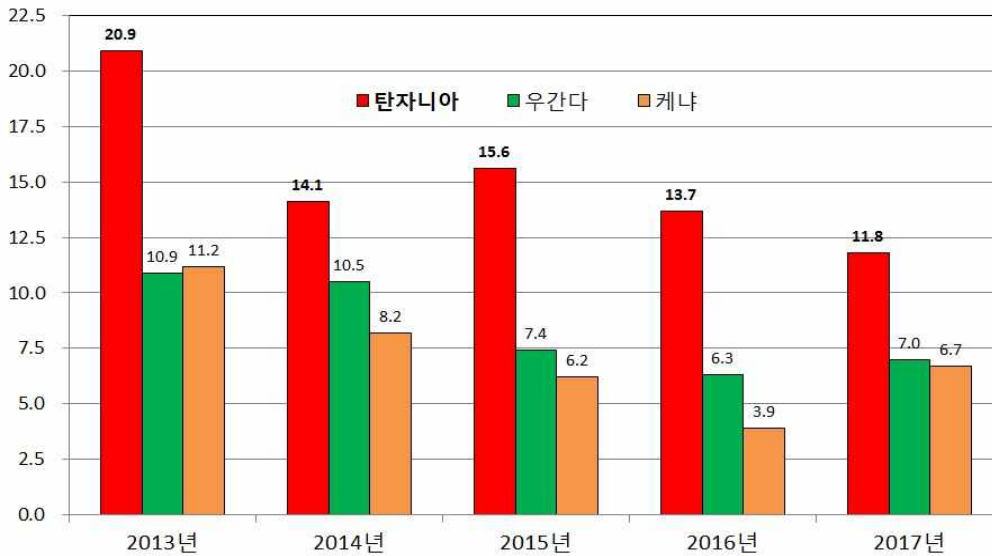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감소로 외환보유액 증가에 차질

- 외환보유액은 원유·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연간 FDI 유입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환보유액의 증가 및 안정적 수준의 유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UNCTAD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15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UNCTAD는 열악한 기업경영환경,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 결여, 부적합한 투자 인센티브, 중복적인 규제, 주요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이 FDI 유입 감소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 FDI 유입액(억 달러)³⁾ : 20.9('13) → 14.2('14) → 15.6('15) → 13.7('16) → 11.8('17)

<그림 1>

최근 5년 간 탄자니아의 FDI 유입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UNCTAD.

3)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외채상환능력

재정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해외차입 규모 증가 지속

- 총외채잔액 규모는 파리클럽의 대규모 외채 탕감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으나, 재정수지 적자분을 해외차입으로 보전함에 따라 최근 외채잔액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27.7억 달러 증가한 192.4억 달러(GDP의 37.2%)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전년보다 20.7억 달러 증가한 213.1억 달러(GDP의 3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IMF는 2018년 1월 기준 탄자니아에 대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DSA) 보고서⁴⁾를 통해, 탄자니아의 부채고통 위기(risk of debt distress) 수준을 '낮음'(Low)으로 평가하여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보고 있음.

단기적 외채상환불능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외채규모가 증가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단기외채잔액도 증가하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4년 44.9%에서 2017년 58.7%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D.S.R.도 2014년 3.5%에서 2017년 11.1%로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나, 세계은행 권고 기준인 18%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기적 외채상환불능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4) <https://www.imf.org/external/Pubs/ft/dsa/DSAlist.pdf> (조회일자: 2018.8.23.)

구조적취약성

농업 의존적 경제구조로 기후변화 및 세계경기에 민감

- 농업은 GDP의 약 30% 및 노동인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임. 그러나 경작지가 국토의 약 5%에 불과하고 소규모 생계농이 대부분으로, 관개시설 등 농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강수량 등의 기후변화에 작황이 크게 좌우되고 있음.
- 또한, 탄자니아의 주요 농산물은 커피, 차, 향신료, 면화 등 수출용이며 식량용 생산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가격에 물가상승률과 경상수지가 크게 좌우됨.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만연, 고급인력 부족으로 성장기반 취약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인프라 수준은 137개국 중 114위(도로 90위, 항공운송 114위, 전력공급 110위, 이동전화 124위)로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다만, 2013-14년 GCI에서는 148개국 중 134위(도로 109위, 항공운송 134위, 전력공급 131위, 이동전화 131위)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완만하나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의하면, 탄자니아 전체 인구의 32.8%만 전력 사용이 가능(2016년 기준)하고, 수력발전이 전력 공급원의 41.6%(2015년 기준)을 차지하여 가뭄 발생시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음. 한편, 도로는 우천과 일몰 이후 안전상의 문제로 통행이 불가하며, 홍수시에는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음.
- 탄자니아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80개국 중 103위, UN개발계획이 발표하는 2016년 인간개발지수(HDI)에서 188개국 중 151위로 중하위권에 그쳐, 부정부패와 고급인력 부족에 따른 열악한 기업환경이 경제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적됨.

성장잠재력

인도양 연안 역외 가스전에서의 천연가스 개발 가속화

- Oilprice.com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17년 기준 약 1.6조 m³ 규모이며, 인도양 연안의 4개 해상 가스전 광구에서 가스 개발이 진행 중임.⁵⁾
- 영국 BG Group과 이스라엘 Ophir가 1·3·4광구, 노르웨이 Statoil과 미국 ExxonMobil이 4광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2010년 이후 인도양 연안에서 천연가스전이 꾸준히 발견됨에 따라 추후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외의 관심을 받고 있음.

5) http://oilprice.com/Energy/Natural_Gas/Tanzanias-344M-Natural-Gas-Plant-Is-A-Game-Changer.html (April 07, 2018)

성장잠재력

- 탄자니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발전연료 등으로 사용하면서 유류 수입을 감축하여, 2015~17년 중 40억 달러 이상의 유류 수입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짐.
- 탄자니아석유개발공사(TPDC)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국내 수요는 2016년 약 411만 m³에서 2017년 약 850만 m³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2>

탄자니아의 인도양 연안 해상 천연가스전



천연가스 화력발전 개발을 통해 전력의 자급자족 및 수출 추진

- 2018년 4월 3일 총발전용량 약 240MW 규모의 Kinyerezi II 천연가스-증기 복합 화력발전소가 준공되었음. 발전용량의 167.82MW는 천연가스, 80.4MW는 증기에 의한 용량임.
- 탄자니아의 경제수도인 Dar es Salaam 외곽의 Kinyerezi 지역에 소재한 동 발전소의 건설에 소요된 예산 3억 4,400만 달러의 15%는 정부 재정자금, 85%는 일본 Sumitomo Mitsui 은행과 JBIC의 대출로 충당되었음.
- 앞서 2015년 10월 13일 역시 Kinyerezi 지역에 준공된 Kinyerezi I 화력발전소는 총발전용량 150MW 규모로, 천연가스와 액상연료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탄자니아 에너지부의 Medard Kalemani 장관은 TPDC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을 통해, Kinyerezi 지역에 가스 화력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여 총발전용량을 600MW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과거 탄자니아는 전력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수력발전에 의존한 결과, 가뭄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이 빈발하였음. 이에 탄자니아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코자 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 Kinyerezi II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용은 2025년까지 탄자니아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국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의 일환임.
- 전력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은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의 중요한 조건들 중 하나임.
- 아울러 탄자니아 정부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소요예산 20억 달러, 총발전용량 약 2,100MW 규모의 Stiegler's Gorge 수력발전 댐 건설의 연내 착공을 추진 중임.
- 탄자니아 정부는 이처럼 가스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 댐의 병행 건설을 통해 2021년 말까지 총발전용량을 5,000MW 수준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될 경우 자체 전력수요 충족을 넘어 인근 국가로의 전력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탄자니아의 총발전용량은 1,357.69MW로, 발전형태별로는 가스 화력발전 607MW(45%), 수력발전 566.78MW(42%), 석유 화력발전 173.40MW(13%)의 비중임.⁶⁾
- John Magufuli 대통령은 지난 2017년의 연설을 통해 탄자니아가 급증하는 에너지 국내수요에 부응코자 노후한 에너지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데 향후 20년 간 462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탄자니아는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석탄, 니켈, 탄자나이트(탄자니아에서만 생산되는 보석류) 등 상업적으로 가치가 큰 광물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수출광물인 금의 확인매장량은 4,500만 온스이며,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전 국토의 약 2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각종 광물자원 매장량의 추가 확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탄자니아의 주요 광물 수출액은 상품수출 총액의 25% 내외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금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금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와 맞물려 탄자니아의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음.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부문의 성장 지속

- 탄자니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비롯한 여러 국립공원,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 이슬람의 영향으로 독특한 문화를 지닌 잔지바르 섬 등의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유럽과 미국 등으로부터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 관광 부문의 지속적인 수입(收入) 유지로 인해 탄자니아의 서비스수지는 대부분의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관광산업은 탄자니아 GDP의 15% 내외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TanzaniaInvest.com에 의하면 연간 관광객 유치 규모는 2006년 62.2만 명에서 2014년 11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6) <http://www.tanzaniainvest.com/energy/kinyerezi-2-launch> (April 05, 2018)

정책성과

사회적 안정과 부정부채 척결 등을 통한 중소득국 진입 추진

- 탄자니아 정부는 농업 위주의 저소득국가에서 산업화를 기반으로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를 추진하고 있음.
- 동 계획은 단순한 경제발전 외에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안정, 고등교육환경 조성, 부정부채 척결 등 정치, 사회적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을 목표로 하는 농업정책 추진

- 탄자니아 농업은 GDP의 약 30%와 전체 고용의 약 6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나, 생산자의 80% 이상이 소규모 생계농이고 농업기술이 낙후되어 생산성이 매우 낮음.
- 주요 수출 농산물은 담배, 캐슈넛, 커피, 차(tea), 정향(clove), 면화, 사이잘삼 등이며, 내수용 농산물은 옥수수, 쌀, 콩 카사바 등임.
- 탄자니아 정부는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을 위해 독립 직후부터 농업 발전을 중시하였으며, 현 정부도 농업의 혁신을 위해 각종 농업 진흥정책을 추진 중임.
- 정부는 민간, NGO, 국외 투자자 등 여러 주체의 참여를 통해 탄자니아 국토의 약 1/3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농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식량 자급자족, 농업의 현대화라는 정책전략을 추진 중임.
- 영농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 탄자니아 정부에 의해 설립된 탄자니아농업개발은행(TADB)은 소규모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음.

도로, 신항만 건설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지속

- 탄자니아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8/19회계연도 정부 예산총액(32.5조 탄자니아실링)의 약 37%를 인프라 구축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할당하고 있음.
- 2018/19회계연도 인프라 개발 계획은 교통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인프라 구축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할당된 정부예산의 약 35%가 동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탄자니아 정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으로부터 1.2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 Arusha부터 Halili를 잇는 총연장 157.5km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Bagamoyo 지역에 새로운 항구 및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Dar es Salaam 항만설비 개선을 위한 Dar es Salaam Maritime Gateway 프로젝트(투자규모 U\$5.65억, 세계은행 및 영국 정부 지원)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남서부 Ruvuma 지역의 Kikonge 수력 발전용 댐 건설(아프리카개발은행이 지원, 2025년 완공 목표), 농촌 지역 송배전망 구축 및 확장 프로그램(세계은행이 지원, 2021년 완공 목표)도 추진 중임.

정책성과

정부 정책의 보호주의 성향과 추진의 일관성 부족이 문제점

- 최근 탄자니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독립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보호주의 정책, 경제정책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부족은 민간 자본의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
- EIU는 2018년 7월 탄자니아에 대한 Country Report에서, 탄자니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경제적 국수주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지적하였음.
-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6/17~2020/21년)은 예고 없이 단행되는 세율 인상, 자의적으로 시행되는 규제 변동,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아울러 산업정책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 국제경쟁으로부터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광물법 개정으로 광업 부문의 부가가치 제고를 추진 중이나 산업적 기반의 결여로 역효과 초래

- 탄자니아 의회는 2017년 광물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격한 관리·규제 및 이를 통한 국가경제 이익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광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동법의 주요 내용은 광물수익에 대한 탄자니아 정부의 무상이익공유율(free-carried interest rate)을 최소 16%로 정하고, 광업 부문 관련 중재는 탄자니아 법원이 담당하며, 광업 부문 거래에 탄자니아 국내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비가공 광물의 수출을 억제하고 가공 사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 등임.
- 그러나 탄자니아의 광물 정련·제련업 발전은 아직까지 매우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가공 광물의 수출 억제는 금을 비롯한 주요 광물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중하지 못한 정책 입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과의 합작기업인 탄자니아-중국 국제광물자원회사(TCIMRL)는 탄자니아 광물 정련·제련업 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6년부터 철광석 매장지역인 소재한 탄자니아 남부의 Liganga에 신규 철광산 개발, 연간 생산량 10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투자규모가 18억 달러에 이르는 동 프로젝트는 2018/19회계년도 중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⁷⁾

7) www.tanzaniainvest.com/mining

정치안정

Magufuli 대통령, 강도 높은 공공개혁 추진

- 탄자니아는 1961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래 현 여당인 탄자니아혁명당(CCM)이 계속 집권하며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1992년 개헌을 통해 다당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CCM이 탄자니아의 유일한 합법적 정당이었음.
- 2015년 10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John Magufuli 現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통폐합, 관료주의 타파,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 등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관련 조치들로는 공무원 해외출장시 대통령실 승인 취득 의무화, 장부상에만 존재하며 급여를 착복하는 '유령 공무원'의 정리, 부패와 연루된 고위 공무원의 해임, 정부 조달의 투명성 강화, 학력 위조 공무원의 퇴출 등이 있음.
- 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빈곤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를 수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Magufuli 대통령,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정책 강행

- Magufuli 대통령은 취임 후 강도 높은 공공 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근무 태만 공무원의 해고, 불필요한 예산지출의 취소, 부패와의 전쟁 추진 등으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펴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전방위적인 반발이 높아지고 있음.
- Magufuli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의회에서의 토의·표결 등 의사결정 과정의 방송 생중계를 중단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 여당 주도로 발의된 일련의 새 법률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이 체포·구금되고 있음.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공무원들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있음.
- 2017년 7월 주요 야당인 민주진보당(Chadema) 소속 의원 3명이 의회 건물에서 나오던 중 총격을 당해 2명이 피살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Magufuli 대통령과 여당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정부·여당의 야당 탄압 및 와해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진보당 대표인 Freeman Mbowe 의원은 지난 4월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반란 선동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야당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유도공작의 결과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 4명과 지방의회 의원 75명이 여당으로 이적한 바 있음.
- 또한 보궐선거는 투표 개표 조작, 경찰의 개입, 납치, 폭력 등으로 결과가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아울러 Magufuli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예산 배정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일부 판사들이 부패와 나태를 일삼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노골화하고 있음.

정치안정

Magufuli 대통령의 전횡에 대한 반발, 수면 위로 부상

- 금년 초 탄자니아의 Ibrahim Hamis Juma 대법원장은 법 주간(Law Week) 기념 연설을 통해 3권 분립을 침해하려는 행위의 '심각하고 엄중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 이어 2월 탄자니아 최종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기소국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 DPP)⁸⁾의 권한 중 일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음. 5명의 판사들은 DPP에게 어떤 범죄가 보석(保釋)의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형법상의 조항이 DPP의 권한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
- 7월 5일 탄자니아의 비정부기구인 Twaweza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동 결과에 의하면 Magufuli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지율은 2015년 96%에서 2017년 55%로 급락하였음.
- 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후인 7월 24일 탄자니아 이민국은 합당한 설명 없이 Twaweza의 Aidan Eyakuze 사무총장의 여권을 압류하였음.
- 이렇듯 자신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발과 저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Magufuli 대통령은 자신이 신임하는 최측근들을 여당 및 정부의 요직에 집중적으로 포진시키는 등 권력기반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사회안정

종족·종교간 큰 갈등 없이 사회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잔지바르 섬의 분리독립 움직임 잔존

- 탄자니아는 1961년 독립 이후 아프리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으며, 30여 개의 다양한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종교가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두드러진 종족 간 또는 종교 간 갈등은 없음.
- 다만, 탄자니아 정부는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잔지바르 섬에 자치 정부와 의회 및 독자적인 헌법을 허용하고 화합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잔지바르에서 일부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분리독립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
- 탕가니카(탄자니아 본토)는 1961년 12월 9일, 잔지바르는 1963년 12월 10일 각각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음. 이후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연합하여 1964년 4월 26일 탕가니카-잔지바르 연합 공화국이 출범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일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으로 국명을 변경하였음.
- 과거 야당 주도로 잔지바르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유혈진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독립파와 잔류파 간의 정치적 공방만 이어지고 있음.

8) 영국 사법체계에서 (탄자니아는 과거 영국 식민지로서 영국 법체계를 사법체계의 기본으로 삼음) 범죄 혐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 공무원으로, 우리나라 검찰의 검사장에 해당됨.

사회안정

독재로 기울어지는 Magufuli 대통령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저항

- Magufuli 대통령의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정부 시위는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 위협에 의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탄자니아 사회 전반에 걸쳐 현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고조되고 있음.
- 금년 사순절 기간 중 탄자니아의 카톨릭 주교단과 루터파 복음주의 개신교 주교단은 Magufuli 대통령의 독재와 야당 탄압, 사법부에 대한 압력, 시민 자유의 억압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음.
- 같은 시기에 탄자니아의 10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Magufuli 대통령의 억압적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에 공동 서명하였음.

국제관계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중심국 역할 수행

- 탄자니아는 케냐와 더불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도국으로,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동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2016.4월 가입)의 6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임. 2005년 역내 관세동맹 출범, 2009년 단일 공동 시장 창설협약 체결, 2010년 역내 공동 관세율 적용 등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EAC 5개 회원국들은 2013년 11월 30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단일 통화를 도입한다는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합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재정정책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임.
- EAC는 2016년 4월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Vision 2050"을 발표, 2050년까지 정치적으로 연합된 중간 소득 수준의 국가통합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천명하였음.

탄자니아-케냐 간 갈등으로 EAC의 내부 분열 표면화

- 그러나 EAC의 양대 축인 동시에 역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인 탄자니아와 케냐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며 내부 분열이 표면화되고 있음.
- 탄자니아는 부룬디와 우의를 다지면서 비회원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을 끌어들이는 반면, 케냐는 이에 맞서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과 결속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 6월 케냐, 우간다, 르완다 3개국 정상은 3개국을 통과하는 송유관, 철도, 발전소 건설과 단일 관광비자 발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이에 2013년 10월 탄자니아 EAC 장관은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와 경제적 결속을 추진 중임을 발표하였으며, 11월에는 EAC 국가 간 단일 비자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여 EAC의 분열이 표면화되었음.

국제관계

- 탄자니아는 Dar es Salaam 항을 주로 이용하는 내륙국인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반면, 케냐는 Mombassa 항을 주로 이용하는 내륙국인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과 새로운 지역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측됨.
- 그러나 최근 탄자니아는 원유, 천연가스 부문에서 우간다와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EAC 내에서의 역할관계가 보다 복잡해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탄자니아 국영 석유개발공사(TPDC)는 8월 6일(현지시각) Dar es Salaam에서 시작되어 인도양 연안 Tanga 항과 빅토리아 호수 연안 Mwanza 항을 거쳐 우간다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⁹⁾
-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2016년 우간다 서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수출을 위해 우간다 유전지대와 탄자니아의 수출항만을 연결하는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에 합의한 바 있음.
- 한편, 최근 EAC 회원국들은 자국에 불법체류 중인 타 회원국 국민들을 강제추방하는 등 회원국 간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해온 ECA의 설립 정신에 반하는 정책 기조를 추진하고 있음.¹⁰⁾
- 탄자니아 이민국도 지난 1월 초 94명의 외국인을 불법입국자로 분류하여 강제 추방하였으며, 대상자의 대부분이 케냐인 71명, 르완다인 7명, 우간다인 2명 등 EAC 회원국 국민들이었음.¹¹⁾

EAC와 EU 간의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지연

- EAC는 유럽연합(EU)과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 동 EPA는 당초 2016년 7월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자국산업 보호를 내세우는 탄자니아와 부룬디의 서명 거부로 현재까지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 EAC 회원국들 중 케냐와 르완다는 이미 2016년 9월 동 EPA에 서명하였음.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및 천연가스에 대한 미국의 관심 증가

- 탄자니아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탄자니아의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3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탄자니아를 방문한 바 있음.

9) www.standardmedia.co.ke/business/article/2001291014/tanzania-wants-to-pump-gas-to-uganda

10) 우간다 정부는 지난 7월 2일 자국에 여행 관련 증명서 없이 불법입국한 72명의 르완다인들을 강제 추방하였음. 르완다인은 자국의 적법한 신분증명서(여권 포함)를 소지할 경우 우간다에 자유로운 체류가 가능함.

11) 추방된 외국인의 상당수는 탄자니아인과 결혼했으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1972년부터 탄자니아에 체류해 온 이들도 포함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외채상환태도

두 차례의 대규모 외채탕감 경험, 현재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연체 없음

- 탄자니아는 2000년 고채무저소득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에 따라 30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 받은 데 이어 2006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Initiative)에 따라 38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 받았음.
- 2018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1,230백만 달러(단기 39.5백만 달러, 중장기 1,190.5백만 달러)이며, 연체비율은 단기 2.0%(0.8백만 달러), 중장기 4.1%(48.9백만 달러)로 집계 되었음.
- 2018년 3월 말 기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환 연체는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8.06)	6등급(2017.06)
Moody's	B1 (2018.03)	

OECD는 6등급 유지, Moody's는 B1 등급 부여

- OECD는 탄자니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6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한편, Moody's는 금년 3월 처음으로 탄자니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B1 등급을 부여한 바 있음.
- Fitch는 탄자니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음.

- 탄자니아는 천연가스 개발, 풍부한 광물자원, 인프라 개발 확대 등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6~7%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열악한 인프라와 기술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2018년에는 천연가스 및 인프라 개발 확대, 투자 활성화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높은 6%대 초.중반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열악한 세수기반과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재정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수출품인 금의 수출물량 감소 및 국제가격 하락,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쌍둥이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보호주의 정책, 경제정책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부족 등이 민간 자본의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
- 독립 이후 현재까지 탄자니아혁명당(CCM)의 집권이 지속되고 있으나, John Magufuli 대통령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정책을 강행하여 사회 각계의 반발과 저항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인프라 건설 등 투자 증대에 따라 총외채잔액 및 단기외채잔액이 증가하고 D.S.R.도 상승 추세이나, IMF는 2018년 1월 탄자니아에 대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서 탄자니아의 부채위기 수준을 '낮음'(Low)으로 평가하여 단기적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보고 있음.